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57년만에 복원 광주무대에

연출 정갑균 시립오페라단 감독·번역 양희석 전남대 교수
유실·훼손된 악보 1년여 작업 걸쳐 새롭게 탄생
29~30일 한국어·중국어 공연... 10월 중국 무대 올라

항일음악가 정율성(1914-1976)의 오페라 '망부운' (望夫云)이 57년 만에 복원돼 광주 무대에 오른다. 창단 2주년을 맞은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첫 브랜드 작품으로 오는 29-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망부운'을 선보인다. 작품을 완성한 두 주역인 정갑균(57)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과 양희석(62)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최근 만났다.

'망부운'의 배경은 중국 운남성 대리백족자치주로, 공주와 사냥꾼의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소수민족 '백족' (白族)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남조국의 공주는 계모인 왕후로부터 정략결혼을 강요받는다. 공주의 사위를 뽑는 부마 선발 대회에서 공주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냥꾼 아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공주와 아백의 사랑을 방해하는 왕후와 법사의 음모는 끊이지 않지만 이들은 잔혹한 운명에 맞서 사랑을 이루려 한다.

수 차례 논문과 책을 펴내며 '망부운' 연구를 집대성한 양 교수는 중국어로 초연된 작품의 번역을 맡았다. 광주시는 시립오페라단 창립을 준비하던 3년 전부터 정율성 오페라 복원을 추진해왔다. 초대 오페라단 예술감독을 맡은 정 감독은 오페라 '망부운'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1962년 중국 베이징에서 초연된 작품을 복원하는데 매달렸다. 국내 중국 문학계의 석학으로 꼽히는 양희석 교수는 작품의 번역을 맡은 동시에 학술적인 연구를 이어왔다.

'왜 이 시점에 정율성이냐'는 물음에 정 감독은 정율성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 세계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정율성은 중국의 3대 혁명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음악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서양식 오페라를 만든 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중국에서 오페라가 흔하지 않은 공연에 속했었어요. '망부운'이 초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대혁명'이 발발해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이 작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망부운' 복원은 지난 2017년 정율성의 딸 정소제씨로부터 악보를 건네받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양 교수는 악보를 건네 받았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2017년 1월23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년 넘게 정율성에 관심을 갖고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다녔지만 그때만큼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거든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정율성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망부운'을 통해 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그토록 찾아 다녔던 악보를 손에 넣었지만 이는 고도의 시작이었다. 정 감독은 자신의 집무실 문서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악보를 보여줬다. 악보는 곳곳이 훼손돼 있었고 아예 일부는 통째로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악보로 57년 전 오페라 작품을 복원하는 건 창작자보다 3배 더 어려웠어요. 망부운을 다시 무대에 올리려는 광주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1년 여의 작업을 거쳐 원래



오는 29~30일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이 57년 만에 복원돼 광주 무대에 오른다. 연출을 맡은 정갑균(왼쪽)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과 극본을 번역한 양희석 전남대 교수.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막 4장이었던 작품을 4막 2장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공연은 양일 한국어·중국어 공연으로 나뉘어 열린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고규남이 각각 공주와 아백 역을 맡고, 30일 오후 3시에는 중국 중앙극원 솔리스트인 소프라노 차이난과 러시아 립스키-코르사코프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쉐하오인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김덕기 전 서울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고, 광주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광주뿌리한국무용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망부운'은 정율성의 가장 권위있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주 출신 음악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번 공연이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망부운'은 오는 10월24일 주상하이 한국문화원과 같은 달 하얼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면 서 더 큰 무대를 만날 예정입니다."



주연을 맡은 소프라노 박수연-테너 고규남.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 예매 1588-7890(티켓링크).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미술을 특정 주제로 묶는 건 관람객들의 감상을 제한시키는 반 예술적 행위다. 주제가 없다고 해서 '주제의 부재(absence of theme)'는 아니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엔위저 오쿠이는 개막 전 인터뷰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비엔날레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주제는 물론 스타작가와 부대 프로그램 없애 '3무(無)비엔날레'를 표방한 것이다. 특정 주제를 내걸지 않고 세계 곳곳의 전시를 한자리에 모은 7회 비엔날레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유료 관람객 36여만 명을 불러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8 한국관광의 별'의 소평부문에 선정됐다. 대인시장을 세상에 알린 오쿠이가 감독이 지난 15일 투병 끝에 5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그는 광주비엔날레 역사상 첫 외국인 총감독, 2015년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레전드'였다. 당시 그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젊은 작가 3명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회 초대했고 임흥순 작가는 한국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오쿠이 감독, 아니 광주비엔날레가 거둔 '위대한 레가시'(legacy-유산)이다.

오쿠이와 2020 비엔날레

무엇보다 7회 비엔날레의 최대 성과는 '일상의 재발견'이었다. 오쿠이는 다른 감독들과 달리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 평범한 공간에 애정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복덕방 프로젝트'는 단연 화제였다. 사전답사차 대인시장을 둘러본 그는 상인들의 순박한 표정과 코골을 자극하는 생선의 비릿내, 개장과 비빔밥 등에 반해 아예 (이곳에) 복덕방을 차렸다.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대인시장의 빈 점포들을 지역 작가 30여 명에게 전시공간으로 빌려준 것이다. 당시 올림픽 여자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시장구역 프로젝트'는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2020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이끌 예술감독으로 이스탄불 출신 큐레이터 데프네 아야스(Defne Ayas)와 인도 출신 나타샤 진발라(Natasha Ginwala)가 선정됐다.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세계 곳곳의 문화기관에서 활동해온 데프네 아야스는 현재 모스크바 연구 및 예술 작품 프로젝션을 지원하는 전시단체 V-A-C 재단 총괄큐레이터로 재직중이다. 또한 30대 젊은 기획자인 나타샤 진발라는 베를린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평형 큐레이터로 다수의 국제전 등을 기획했다.

이는 2020년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모조록, 두 여성 감독이 내년 광주에서 비엔날레 역사, 나아가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또 한번의 레가시를 남겨주길 바란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슈베르트·멘델스존을 만나다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 창단연주회 24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실내악단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N.S.E)이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은 '광주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출발했다. 광주시향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현경씨가 단장을 맡고 김미현·박소영·오인표·이무송·이준·정수진(바이올린), 양운서(비올라), 이후성·정아름(첼로), 남하나(콘트라베이스)씨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멘델스존의 '현악 교향곡 10번 나

단조'로 문을 연 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가장조 작품 219'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14번 라장조 '죽음과 소녀' 작품 810'으로 마무리한다. 슈베르트가 스무 살이었던 1817년 작곡한 가곡 '죽음과 소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의 수석지휘자인 이규서씨가 지휘봉을 잡고 KBS신인음악콩쿠르-베르겐 필하모닉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바이올리스트 이혜정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가 협연한다. 김현경 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내년 광주에 걸맞는 연주 실내악단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정기적인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에 클래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3625-31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파크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 개최

인터파크가 '제13회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인터파크와 (사)행복한아침독서가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출판모임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개인 우수상(34명) ▲최다 독후감 응모학교(4개 학교) ▲우수 독후감 선정학교(중·고등학교 각 3개 학교) ▲지도 교사상(5명)을 선정한다. 지정도서 목록 및 자세한 참가 방법, 신청서 양식은 인터파크 해당 이벤트 페이지(http://inp.kr/qzC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백세 짬뽕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볼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빌딩)
하모(참영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켤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합형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루팡닭강정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